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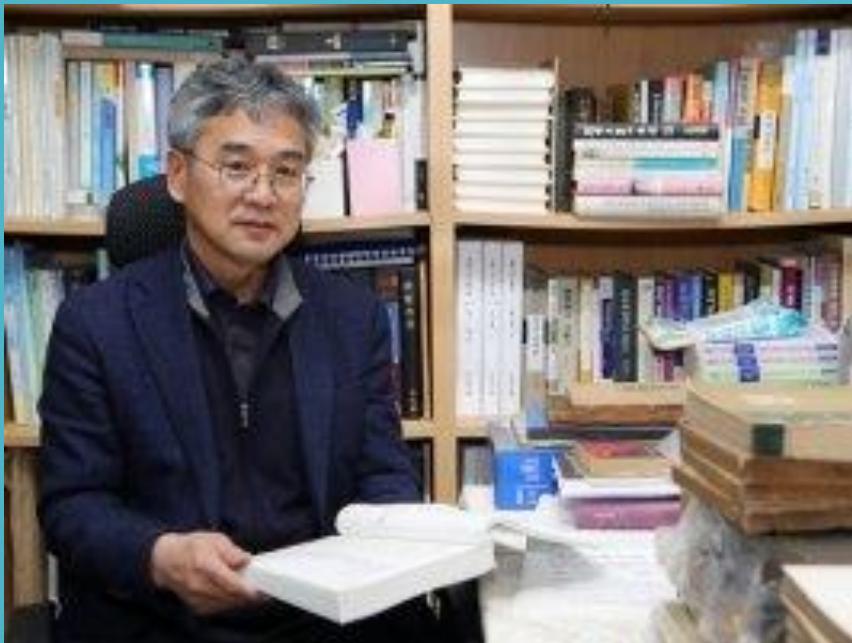
현대문학자대회

한국학의 뿌리로서 조선 연구와 미래의

한국학 연구 시론

허재영(단국대)

차례



1. 시작가기
2. 근대 이후 조선 연구의 기원과 일제 강점기 조선학
3. 광복 이후 한국학 논쟁과 미래의 한국학
4. 마무리

1. 시작하기

- 한국학이라는 용어의 문제
- 연구 목적과 대상:
 - ▲ ‘국학’과 ‘한국학’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개념과 정체성)
 - ▲ 한국학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근대 시기 ‘한국 연구(또는 조선 연구)’와 일제 강점기에 존재했던 ‘조선 연구(또는 조선학)’와 오늘날 한국학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한국학의 역사)
 - ▲ 한국학의 연구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연구 방법론은 어떤 성격을 띠는가(대상과 방법론)
 - ▲ 한국학의 역사 속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국학은 어떠해야 하는가(전망)

이 발표에서는 조선 연구(조선학)와 한국학 연구의 흐름을 중심으로, 한국학의 정체성과 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함

2. 근대 이후 조선 연구의 기원과 일제 강점기 조선학

2.1. 근대 이후 조선 연구의 기원

김윤경(1932): 『한글』 제6호(1932.12.) ‘한글 연구 재료의 문헌’ 참고

제1부 조선어 본위의 서류(제1류 어법과 회화의 서류, 제2류 언해 서류, 제3류 사서류(辭書類: 보통사서류, 백과사서류, 특수사서류, 어원과 이언서류), 제2부 지나어 본위의 서류(제1류 사서류, 제2류 독본서류), 제3부 몽고어 본위의 서류(제1류 사서류, 제2류 독본서류), 제4부 여진어 본위의 서류, 제5부 만주(청어 본위의 서류), 제6부 일본어 본위의 서류(제1류 사서류, 제2류 독본서류)로 구성된 이 자료 목록에는 그 당시 한국어 연구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헌과 논문들이 망라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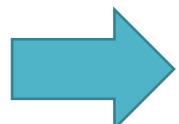
한글 연구 문헌은 1446년 『훈민정음』으로부터 근대 유길준의 『대한문법』, 주시경의 『조선어문법』 등과 같이 한국인이 저술한 것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어학 학습서인 『노걸대』, 『박통사』를 포함한 근대의 한국어 학습서인 『한어통』(마에마 교사쿠, 1909), 1897년 아스톤의 『일한어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f th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와 같은 외국인의 한국어 연구서를 망라한다.

사쿠라이 키치(櫻井義之, 1941), 『메이지 연간 조선 연구 문헌지(明治年間 朝鮮研究文獻誌)』

1868년부터 1910년까지 일본에서 출간된 조선 관련 서목을 정리한 책으로, '조선 사정 일반', '역사·전기', '내정·외교', '경제·산업', '지지(地誌)·기행', '교육·문예', '종교·위생', '조선지도' 등이 비교적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이는 일본에서의 조선 연구가 메이지 시기를 기점으로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기의 서목 가운데는 『조선사정(朝鮮事情)』(1875, 染崎春水), 『조선견문록(朝鮮見聞錄)』(1876, 佐田白茅), 『조선휘보(朝鮮彙報)』(1891, 東邦協會) 등과 같이, '사정', '견문', '기문', '휘보'라는 책명이 다수 등장

조선총독부(1919), 『조선도서해제(朝鮮圖書解題)』

이 책은 그 당시 조선총독부가 확보하고 있던 조선의 도서에 간단한 해설을 붙여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체제에 따라 편제한 책이다. 비록 식민 지배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자료일지라도 이 책은 일제 강점기 조선 연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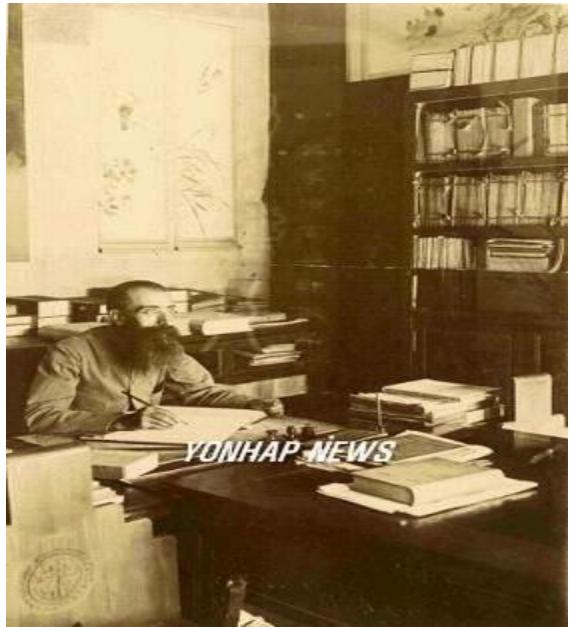


1930년대 고전부흥운동, 조선고전해제 운동 등의 배경

- ‘조선 연구’ 또는 ‘조선학’(근대 초기 ‘학’이라는 용어 대신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므로)이라는 용어를 고려할 때, 학리적 차원에서 조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근대 이후의 일로 보아야 할 것
- 근대 이후 조선에 대한 관심은 서세동점기 서양인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활발 했음

<서양인의 연구>

- 17세기 네덜란드 하멜 일행의 『하멜표류기』, 『조선국기』를 필두로 다수의 여행기가 존재하며, 1880년대 이후 한국 사정이 서양에 알려지면서부터 조선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 1877년 로스의 『Corean Primer』, 1881년에는 파리외방선교회의 『한불자전』 등
- 이들의 연구는 광복 이후 한국학 연구자들이 빈번히 지적한 바와 같이, 15세기 서구의 지리상의 발견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형성된 제국주의의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에서 선교 목적과 새로운 식민지 개척 의도 등과 결합된 면이 적지 않음
- 서양인 문헌 연구: 이 시기 서양인에 의해 유출된 국내 문헌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모리스 쿠랑의 『한국서지(韓國書誌)』와 같이 조선과 관계를 맺고 있던 서양인들에 의해 조선의 문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목할 만함



참고로 1965년 국회도서관 사서국에서 발간한 『영문잡지색인-An Index To English Periodical Literature Published in Korea 1890-1940』에 따르면, 189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한국에서 간행된 영문 잡지 10여 종이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행된 최초의 영문 잡지는 1892년 삼문사(The Trilingual Press)에서 간행한 『The Korean Repository(한국보고)』(1892, 1895-1898)로 보이는데, 이 잡지는 ‘지식의 보고(Repository)’라는 잡지명처럼 그 당시 조선에서의 선교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인의 연구>

- 조선연구회: 1908년 호소이 하지메(細井肇)가 중심이 되었던 ‘조선연구회’, 이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조선을 연구했던 아오야기 쓰나타로(青柳綱太郎) 등의 조선 관계 연구서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던 저서들임



- 사쿠라 이키치나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문헌목록’처럼 일본인이 정리한 목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900년대 조선에서 활동했던 일본인들의 연구 또는 일제 강점기의 각종 조사 사업의 성격과 내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소결>

1880~90년대는 외국인들의 조선에 대한 관심과 조선 역사 및 문화 등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는 시기이며, 1900년대부터는 국권 침탈과 함께 일본인들의 조선 연구가 활발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은 일제 강점기의 이른바 과학 주의를 기반으로 한 ‘조선 연구’나 ‘조선학’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1960년대 이후 ‘주체성’을 강조한 ‘한국학’ 또는 ‘국학’ 연구의 분위기로 볼 때 학문적 차원의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었음도 부정할 수 없다.

2.2. 일제 강점기 조선학의 성격

○ 일제 강점기 ‘조선학’이라는 용어: 이른바 과학적 학문 연구를 기반으로 한 조선 연구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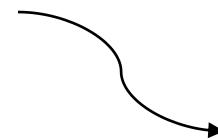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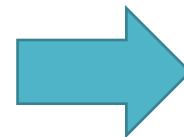
- 신주백(2014)에서는 1926년 경성제대 법문학부 설치 후 이마니시류(今西龍)의 ‘조선사학’,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조선문학’, 오쿠라신페이(小倉進平)의 ‘조선어학’ 등과 같은 제도권의 조선 연구를 주목한 바 있는데, 그러면서도 조선학의 범주가 1900년대 이후 ‘경학으로부터 독립·분과화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
- 허재영(2017)에서는 1920년대 문화운동 및 조선교육령 개정(1922년 신교육령)에 따른 ‘조선심(朝鮮心)·조선정신(朝鮮精神)·조선지식(朝鮮知識)을 연구하자’는 주장으로부터 점차 ‘조선 연구’를 거쳐 1930년대 ‘조선학’이라는 용어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음: 최남선 ‘단군론’에서 이 용어 처음 사용

<조선학 논쟁: 동아일보 1934.1.1>

문일평

김태준

신남철



近日에 使用하는 朝鮮學은 흔히 埃及學과 앗시리아學과 並稱하는 傾向이 있다마는 여기는 多少 그 意義가 다르니, 廣義로는 宗教 哲學 藝術 民俗 傳說 할 것 업시 朝鮮 研究의 學的 對象이 될 만한 것은 모두 包含한 것이다, 狹義로는 朝鮮語, 朝鮮史를 비롯하여 純朝鮮文學 가든 것을 主로 指稱하여야 하겠다. (중략) 조선인의 특수성을 표시하는 언사(역사, 조선문학 등)

漠然히 朝鮮學이라고 한 것은 朝鮮의 歷史學, 民俗學, 宗教學, 美術學, 朝鮮語學, 朝鮮文學類 …를 總括한 것으로 便宜上 이러한 題目을 假設한 것이다.

朝鮮學은 朝鮮의 歷史的 研究로부터 始作된다. 그런데 이 歷史的이라는 말은 在來의 朝鮮의 學者들 사이에는 頗히 非歷史的인 雜駁하고 表面的인 考證과 年代記로써 理解되고 잇섰다. 그러나 歷史的 研究의 真正한 意味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科學的 必然性의 法則을 客觀的 發展의 속에 發見하여서 써 諸形態의 交互關係를 組織하고 理解하는 데에 잇는 것이다

** 조선학은 본질적으로 ‘조선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의미할 뿐 아니라, ‘국학(國學)’으로 불리는 일종의 민족주의, 국수주의적인 연구를 탈피하여 이른바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 조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

<조선학과 국학>

日本에서는 ‘國學’이라는 것에 對하여 論議된 지 二百數十年이고 中國에서도 亦是 國學에 새롭운 運動이 오래 전부터 일어나서 中國 近代 政治史上에도 큰 한 페-지를 占하였고, 또 그것이 活潑하게 討論된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새로운 概念, 새로운 方法으로서 그들은 歷史的 社會的 條件에 依據하여 歷史的 文化的 遺產을 批判 討論하여서 써 그것에 一定한 現代的 座標를 定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日本과 中國의 그 運動에는 重大한 差異를 認定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니 前者에 있어서는 國粹的이라는 것, 後者에 있어서는 進步的 改革의 이었다는 것을 指摘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나는 兩者에 있어서의 그 差異를 比較하여 朝鮮學 樹立에 있어서의 若干의 參考를 提供하려 한다. -신남철(1934), 朝鮮學 樹立의 義意, 『동아일보』1934.1.5

<조선학과 국학>

백남운

국학의 성격: 日本에 잊어서의 國學의 所謂 四大人이라고 하는 이들의 業績이, 明治維新과 全然 關係가 없다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역시 그 國學이라고 하는 것도 日本하면 日本의 社會의 客觀的인 發展의 線에 沿하여 考察하는 것이 가장 妥當하지 안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洋學 때문에 國學이 그려케 迫害를 받았다고 할는지요…?

과학주의: 朝鮮心, 朝鮮意識을 過去한 歷史的 事實의 研究에서 끄집어 낸다는 것이 朝鮮學樹立의 究極의 目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큰 疑問이라고 생각합니다. 勿論 過去한 歷史的 事實의 研究는 必要합니다. 研究된 諸史實을 통하여 우리의 過去를 批判해야 現在를 反省하는 것은 必要한 일이고. 그러나 現在 朝鮮을 研究하자 하는 機運에 際會해야 운위되는 朝鮮意識이니 朝鮮魂이니 하는 데는 만흔 問題와 批判의 餘地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학의 성격>

일제 강점기 조선학은 조선의 언어, 역사, 문학에 관한 민족 주체의 연구이자 과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종합적 학문의 하나로 천명되었지만, 그 자체로서 뚜렷한 개념 정립이나 연구 대상과 범위 확정, 연구 방법론 제시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안재홍: 늘 하는 말이지만 朝鮮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는 廣義의 朝鮮學이니 외갓 方面으로 朝鮮을研究 探索하는 것을 云謂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朝鮮의 固有한 것, 朝鮮文化의 特色, 朝鮮의 獨自한 傳統을闡明해야 보자는, 말하자면 本來의 意味에 있어의 朝鮮學-狹義의 그것이라고 할가-이 그것이겠지요. - 조선인의 견지에서 조선 사람을 연구하는 것. -『동아일보』1934.9.12. 世界文化에 朝鮮色을 짜 너차

3. 광복 이후 한국학 논쟁과 미래의 한국학

3.1. 한국학의 개념과 연구 과제

- 광복 이후 한국학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뒤부터 1950년대까지는 ‘한국’이라는 용어보다는 ‘조선’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3년간의 미군정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광복 직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 1930년대 비교적 자주 쓰이던 ‘조선학’이라는 용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의 주요 신문뿐만 아니라 『백민』, 『신천지』와 같은 잡지류도 비슷하다. 이는 ‘조선학’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현상윤과 같이)과 함께 광복에 따른 ‘민족운동’, ‘국학사상’이 이 시기의 중심 사조를 이루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광복 직후 국학의 개념>

‘국학’은 일제 강점기부터 민족주의 또는 국수주의적인 연구 경향을 지칭하는 것으로 비판받기도 했으나, 광복 직후 ‘국어’, ‘국문학’ 등과 같이 비교적 널리 쓰였던 용어로 판단된다. 신문류에서는 이 용어를 찾기 어려우나 『자유신문』 1945년 11월 21일자 ‘국학연구회’ 관련 기사를 참고하면, 이 시기 권상로(權相老)를 회장으로 한 국학연구회가 조직되어 ‘국사·국어 강습회’를 개최했으며, 장도빈(張道斌)과 권덕규(權德奎)가 참여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국학이란 이를 廣義로 解釋한다면 우리나라의 獨特한 學問, 哲學, 宗教, 思想, 藝術, 天文, 地文, 民俗 및 傳統 野史에 이르기까지 朝鮮에 關한 學的 對象이 될 만한 것은 一切를包含한 學問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嚴正한 立場에서 다시 생각하여 볼 때에 廣義로서의 國學보다도 狹義로서의 國學, 즉 朝鮮 사람의 過去相을 描寫한 朝鮮史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獨特性을 表示하는 말이며, 아울러 우리말로 우리 겨레의 實生活과 風俗, 傳統 등을 描寫한 純朝鮮文學 같은 것을 網羅한 것이 이에 適切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운삼(鄭雲三, 1946), 국학의 재인식, 『국학(國學)』 창간호, 국학전문학교학생회, 63-65.

○ ‘조선문화연구’: ‘조선학’이나 ‘국학’ 대신 한국을 좀 더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입장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한 용어로 보인다. 이 용어는 경성대학(경성제대에서 광복 직후 경성대학으로 명칭 바뀜) ‘문화과학연구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기관이나 출판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 하나가 ‘조선문화총서(朝鮮文化叢書)’이다. 손진태, 이병도, 이병기, 이희승, 조윤제, 이충녕, 이상백 등이 중심이 되어 을유문화사가 기획인 ‘조선문화총서’는 1946년부터 간행되기 시작했는데, 1950년대에는 ‘한국문화총서’로 이름을 바꾸었다.

<1960년대 이후 '한국학'이라는 용어의 등장>

배경1: 해외에서의 한국학 연구 또는 외국인들의 한국 연구 경향 – 전후 복수와 한국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각종 신문 기사 확인 가능)-한국어 강좌 예

배경2: 국수주의적 국학 연구에 대한 반성-한국학의 주체성 문제 대두(윤성범의 논설)

한국의 정신문화에 관한 책들 중에 일인들이 쓴 것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헌들을 읽은 독후감은 그리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한국 민족의 얼을 가지고 연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생동성(生動性)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것들이 김 빠진 맥주격이 되고 말았으니 말이다. 그 중의 특기할 만한 것은 일인 유종열(柳宗悅) 시의 한국 미술공예에 관한 공적이다. (중략) '한국학(KOTEANISTIK)'이라는 말은 아직 통용되고 있지 않다. 사실 한국의 정신문화 일반, 특히 한국의 신화, 신관념(神觀念)과 제신(諸神)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이로종이 제기되는 언어학적, 민속학적 문제 등 광범위의 연구 분야가 '토루소'로 남아 있다. 물론 여기에는 객관적 과학적인 재료 수집도 문제려니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자세이다. 이 주체성을 잊어버리고는 우리의 연구 결과는 '로봇'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윤성범(1963), 한국학과 주체성, 『동아일보』 1963.4.29.

<한국학 정체성 관련 문제>

‘한국학의 문제점’이란 주제의 심포지움이 18일 오후 중앙대학 시청각교실에서 열렸다. 본시 요즘 논의되는 한국학이란 학문을 앞에 놓고 그 기초적인 문제점을 열거하려던 이 심포지움은 주제 발표를 맡은 이승녕, 임석재, 조기준, 천관우 제씨가 한결같이 학문으로서의 한국학 성립 여부를 부정면으로 의논하는 바람에 결국 학(學, Science)으로서의 한국학의 성립 여부를 묻는 심포지움으로 변질되고 만 느낌이었다.

천관우: 한국학은 선진국이 후진국 연구에 붙이는 입문 수준 연구 용어, 민족주의 국수주의적 연구 바탕 종합으로서의 연구

조기준: 동양학과 마찬가지로 19세기 초 서양 자본주의가 동양에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 유래한 용어 - 방법론 반성 필요

이승녕: 국학 연구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학자적인 사안(역사를 보는 눈)과 문화 연구된 국학 각 분야를 연결하는 국학연구소 필요

-동아일보 1968.10.19. 한국학의 문제점

3.2. 한국학 연구 방법 논쟁과 미래의 한국학

- 1960년대: 주체성과 방법론 논쟁이 중심을 이룸
- 방법론의 문제: 경향신문 1971.4.1. - 김동욱, 이기백, 조기준
- ▲ 한국 인문과학 연구의 변천과 과제 (김동욱): 향가 및 이두의 연구(오쿠라신 페이)를 비롯하여, 1931년 조선어문학회를 중심으로 한 국학의 근저에 뿌리박은 민족주의적 양상은 도남의 『국문학사』에 나타났다.

▲ 민족문화 연구의 오늘과 내일-아직 계몽적 단계 못 벗어나(이기백): 분류사(分類史)는 개별적 연구보다 개설에 가까운 중간에 위치한다. 역사적인 현상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면서 전시대에 걸친 발전을 개관하기 때문이다. (중략) 1906년부터 서양의 역사 서술법을 본뜬 새로운 체제의 한국사가 나타났다. 이 시기 대표적인 분류사는 이능화와 안학의 저술들이다. 1923년 일본학자들로 조직된 조선사학회가 조선사강좌에 분류사를 포함시켰는데 일본학자들은 한국학자에게서 얻은 지식에 어용적 해설을 붙인 정도였다. 이 시기 분류사는 대부분 자료 정리에 치우치거나 계몽적 저술에 불과하다. 안학의 정치사만은 정치 형태의 발전에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체계화시켰다. 1930년을 전후하여 한국사 연구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나 분류사 연구는 계몽적 단계를 크게 넘지 못했다.

▲ 거의가 서구 방법론에 의존, 새롭고 혁신적 이론 캐내야(조기준): 한민족의 사회경제사는 반세기 전부터 서구의 사회과학 방법론에 따라 연구되었다. 개척기는 일본 관학자들이 주장한 식민지적 사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 위트 포겔 등으로 대표되는 동양사회 정체론에 영향 받았다. 특히 민족사가에게까지 깊이 침투한 정체론에 대한 반성은 오늘날 한국사 연구의 새로운 사조를 이루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 연구 인구가 늘고 기본 자료의 복간, 학회 활동 등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방법론에서 주목할 점: 자료 문제>

- 한국학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과 정리: 『조선일보』 1967년 8월 19일 ‘한국학 연구 22년 어디까지 왔나’라는 특집 기사에서 전규태 교수가 언급했듯이 국문학 고전 연구 차원에서 일제 강점기로부터 주석적인 연구가 지속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기백 교수의 지적처럼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등 다수의 자료 간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자료 번역과 보급: 1960년대 후반부터 민족문화추진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법제처, 동국대 역경원을 비롯한 기관의 국역 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경향신문』 1982년 5월 28일 ‘한글문화의 현주소-뿌리 내리는 고전 국역’에 따르면 당시까지 민족문화추진회의 국역 사업 성과로서 38종 2백 17종의 고전 국역총서가 간행되었으며, 5백 책의 민족문화문고 출간 계획이 수립된 상태였다.

<새로운 연구 방법론: 자료 전산화의 문제-1980년대 이후>

시대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연구 방법을 찾는 것은 한국학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여기서 방법론은 자료를 다루고 해석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자료를 처리하는 것도 포함된다. 주목할 점은 1980년대 이후 한국학 연구사에서 자료 전산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 일보』 1981년 8월 20일 ‘한국학 자료 전산화한다’는 흥미로운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사에서는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도서관의 전산화 세미나를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원의 도서관에 장서 각 도서를 포함한 16만 6백 24책의 도서를 전산화하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오늘날의 한국학 연구는 주체성 있는 한국 연구뿐만 아니라 기초 자료의 확보, 전산화를 거쳐,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아카이브 구축 등으로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마무리

‘한국학의 반성’이라는 주제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한국 학계의 대표적인 학술 테마 가운데 하나였다. 이를 반영하듯 1980년대 이가원·이우성 외(1981)의 『한국학연구입문』(지식산업사), 대한민국 학술원(1983)의 『한국학입문』(학술원) 등과 같은 저술이 나타났고, 1990년대에는 한국학의 세계화와 21세기 정보화와 관련한 다수의 한국학 연구서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 한국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서 또는 교양서가 등장한 것도 이 시기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인하대 BK사업단(2008)의 『동아시아 한국학입문』(역락), 장두영 외(2011)의 『한국학입문』(호남대 출판부) 등과 같이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지속되어야 할 연구 과제

과제1

한국학의 개념과 정체성, 연구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과제2

근대의 조선 연구와 일제 강점기 조선학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하는가? (극복 대상인가, 수용 대상인가?)

과제3

현대에 적합한 한국학의 방법론이란 무엇인가?

결론:

미래의 한국학은 학제 간 연구, 고유 방법론 모색,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한국학이어야 하며, 국가와 민족을 전제로 한 주체적인 한국학이자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에 몰입된 것이 아니라, ‘학문적 성과는 국가·사회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는 당위 명제를 충족할 수 있는 학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韓國學研究入門

李家源 李佑成 鄭昌烈 尹緯淳 林熒澤 編

